「經營情報硏究」第11號
大韓經營情報學會
2002年 12月

21세기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벤처사업 활성화 방안*

김 미 경**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관광벤처사업의 이론적 고찰
1. 관광벤처사업의 정의
2. 관광벤처사업의 현황
3. 관광벤처사업의 문제점
Ⅲ. 관광벤처사업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관광벤처사업은 21세기의 새로운 사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으로는 그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으며,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에 질의를 해야하는지,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조차도 알기 힘든 상태이다.

정부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관광산업은 국내의 현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신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보혁명의 시대를 쫓아가기에 역부족인

* 본 연구는 경남정보대학 학술연구비(정책연구)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경남정보대학 호텔경영과 부교수

실적이며, 지식인프라기반 또한 미흡한 편이어서 관광벤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즉, 지식집약적 관광정보화사업을 선도해나갈 관광정보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육성, 민간부문의 창의성 적극 활용, 원활한 관광벤처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같은 관광벤처사업 육성책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벤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 정비, 금융·세제상의 지원, 투자환경 개선,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홍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같은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시장의 30% 정도가 관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온라인을 통한 모객 및 예약은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관광시설, 자원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으나 21세기에는 신지식, 아이디어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산업, 첨단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자원과 시설을 가지고도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인터넷 여행, 소주제공원 기획·개발, 유원시설 제작,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이벤트 기획, 관광컨설팅, 관광지 관리·운영 등)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사이버관광시장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관광사업 21세기를 선도해나갈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서의 관광벤처사업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관광벤처사업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관광벤처사업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광벤처사업의 활성화는 관광산업으로의 신규인력 유입과 관광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대규모·대자본 중심의 관광사업에서 미래지향적인 신지식 및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저자본 사업으로 확대되어 관광산업의 다양화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관광벤처사업은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하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으로서 관광중소기업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 집약도가 높은 사업을 의미한다. 관광벤처사업에는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국제회의기획사업, 주제공원 기획·개발사업, 관광컨설팅사업, 우수여행상품개발사업, 첨단매체 및 기술활용 여행사업, 종합휴양업내 놀이기구 개발업 등이 있다.

그런데, 관광벤처사업에는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숙박시설업, 음식점업 등의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등의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등의 오락등 관련서비스업, 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등의 기타 서비스업 등 총 48개업종에 대해서는 관광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업종들은 제외한 관광벤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광벤처사업의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1세기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관광벤처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광벤처사업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들 관광벤처사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광벤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검토는 물론 정부의 지원정책, 민간차원의 활성화 노력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제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Ⅱ. 관광벤처사업의 이론적 고찰

1. 관광벤처사업의 정의

벤처사업이란 신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창업하여 높은 수익성과 동시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권오혁, 1998, p.5) 또는 첨단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경영의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수익

이 기대되는 신규사업 즉, 고위험·고수익을 특징으로 하는 기술·지식집약적 중소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는 R&D비율 등을 포함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외국의 관광벤처사업의 정의와도 고기술, 중소기업, 창업 혹은 신생기업, 높은 위험과 기대수익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벤처기업은 대부분 컴퓨터기기 및 소프트웨어, 통신, MIS 등에 집중되어 있어 관광산업분야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이 없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표 1> 벤처기업의 정의

구분	정 의
OECD	R&D 집중도가 높은 기업,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주요 요인인 기업
미국	고위험 높은 수익의 신사업
일본	R&D비율 3% 이상, 업력 5년미만의 특정 중소기업
대만	기술집약형 기업(2년마다 정부에서 지정)
한국	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창업된 중소기업

출처 : 권오혁(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6.

이들 벤처기업들은 첨단기술, 신사업 등의 폭넓은 정의로 인해 오히려 벤처기업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때문에 학자들은 벤처기업을 유형화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관광사업은 관광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모든 사업이라고 광의로 정의할 수 있는데, 관광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여행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현재 관광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관광벤처사업은 관광진흥법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9년 5월말 관광산업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주도의 투자조합이 결성되었다. 이는 정부출자금 30억원, 국민기술금융과 일반투자가 출자금 20억원 총 50억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관광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관

광벤처사업에 대한 지원을 개시하였는데, 1999년 8월의 경우,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한 분야는 사이버 여행사들이 50%, 관광기념품 판매업체들이 30%, 관광컨설팅업체들이 20%로서 정부가 집중 투자방침을 밝힌 놀이기구 개발, 테마파크 개발 등의 분야에는 전혀 없어 여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벤처기업의 유형화관련 연구

연구자	유형화의 기준	유형화
Cerland et al (1984)	기업의 전략적 행위유형 - 신제품 도입 - 신생산방식 도입 - 신시장 개척 - 산업의 재조직	- 중소기업형 - 창업가형
Covin (1991)	전략적 자세 정도	- 창업가적 기업군 - 보수적 기업군
Gartner and Vesper (1989)	4가지 차원 - 개인적 차원 - 조직적 차원 - 환경적 차원 - 과정적 차원	- 도피형 - 동업형 - 기술활용형 - 기업매입형 - 전문지식 의존형 - 공격적 판매형 - 독특한 아이디어 추구형 - 체계적인 조직화형
한정화 (1996)	창업형태	- 파생형 창업 - 독자형 창업 - 모방형 창업 - 분봉형 창업 - 기존 중소기업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으로의 재창업
이덕훈외 (1995)	기존기업과의 관련성	- 내부형 벤처기업 - 독립형 벤처창업

출처 : 권오혁(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13에서 발췌 요약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는 관광벤처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법시행령 제2조에서 밝히고 있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하고 있다.

- **유형 1**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 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인 기업
- **유형 2** : 당해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 **유형 3** :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거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하는 기업
- **유형 4** :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관광벤처사업은 위의 유형 3 즉, 신기술 또는 지식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해당되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업으로서 관광중소기업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 집약도가 높은 사업을 의미한다.

관광벤처기업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총사업비용의 20% 이상을 출자받은 기업이거나 주제공원, 국제회의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독특한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의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대비 300% 이상인 사업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벤처사업에는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국제회의기획사업, 주제공원 기획·개발사업, 관광컨설팅사업, 우수여행상품개발사업, 첨단매체 및 기술활용 여행사업, 종합휴양업내 놀이기구 개발업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업종들은 관광벤처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즉, 관광분야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기술 개발기업"에 속하며, 해당부처의 증명을 거쳐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으면 벤처기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크게 4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관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 특히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벤처사업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표 3> 관광벤처기업 제외업종

구 분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여관업, 하숙업, 회원제 숙박시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오락등 관련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서비스업

첫째, 자금공급의 원활화로서 새천년 관광투자조합의 직접 투자,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투자조합 및 투자회사의 투·융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주식회사 자본금 규모 특례, 자기주식의 취득, 일반공모증자, 의결권없는 주식의 특례 등 준용과 같은 협회에 등록한 벤처기업의 증권발행에 관한 특례를 받는다.

둘째,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로서 정부부처, 정부투자기관 등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기술지도, 개발비용 등의 지원,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시 휴직, 겸임 또는 겸직 허용(대학교원, 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포함),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입지공급의 원활화로서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지정·개발, 벤처기업 집적시설(벤처빌딩)의 지정 등 촉진,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대학교원,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실험실 공장을 설치 가능), 창업보육센터가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대학 및 연구기관 내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 설치 가능)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벤처기업 조세감면으로서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5년간 감면해주며 수도권에서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3~5배 중과 적용을 배제해주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세와 취득세 2년간 전액 감면, 재산세 및 종토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줄 것을 검토중에 있다.

이상과 같은 관광벤처사업의 혜택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관

광산업분야의 경영인들에게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요하고 있다.

2. 관광벤처사업의 현황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세계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기를 초래한 불의 혁명, 산업혁명에 이어 제3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혁명이 세계를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정보인프라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자의 기하급수적 확산은 고부가가치 지식정보화산업의 급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현재 관광벤처사업과 관련한 이론연구는 미흡한 실정인데,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고성수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의 활성화 방안(1996), 권오혁의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1998), 삼성경제연구소의 벤처기업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1996), 이장우의 기업가 정신과 벤처기업론(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1998),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벤처기업 육성방안(1999) 등이 있다. 즉, 관광벤처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의 정비는 1999년말이 되어서야 논의되는 정도에 불과한 편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이론연구에 치중하던 학계에서도 세종대학교 관광대학과 경주대학교 관광학부에서 관광벤처기업을 창업하려 하고 있는 등 관광학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광벤처사업을 산·학 협동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도입하려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 관광벤처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한국관광연구원의 관광벤처사업 육성방안(김덕기·유지윤, 1999)에 관한 연구에서는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에 관광부문을 포함시킬 것,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벤처기업 지원규정 명문화, 관광진흥법상 관광벤처지원센터 관련 규정의 신설, 관광창업보육센터의 설치 관련 규정의 명문화와 같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관광산업계의 관광벤처사업관련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이버 여행사 '웹월드', (주)타임머신세계여행 등외에도 새롭게 관광벤처사업을 하고자 사이버 여행업 분야에 (주)3W투어, (주)트레블컴, POSHTOUR, (주)에틱월드, (주)투어프라자관광, 관광컨설팅사업분야에 (주)

지스코산업연구소, 한국관광개발연구소,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분야에 스누피 플레이스(주), 에니메이션 캐릭터상품 판매분야에 (주)엠씨아이, 사이버 캐릭터 음반 제작·유통분야에 NAZA엔터테인먼트, 관광호텔 컨설팅업분야에서는 (주) 세계관광네트워크, 전통문화 영상물 제작·유통분야에서는 한국문화영상사업(주) 등이 관광벤처사업을 하고 있다.

관광벤처사업의 가장 활발한 형태가 여행사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활용인데, 현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전문 프로그램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김동영, 2000, p.63)을 노정하고 있어 최고 경영층을 비롯한 종사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광벤처사업은 특히 지식·문화·역사적 요소와 첨단기술이 투입되어 부가가치율 제고 및 외화획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중에서도 특히 테마파크, 컨벤션센터(국제회의), 고급 문화관광이벤트 및 역사유적의 관광상품화, 특색 있는 레저산업, 놀이공원, 사이버관광 등이 지식집약화 발전이 가능한 세부분야(산업연구원, 1996, p.95)로 꼽고 있다.

관광벤처사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규모 관광기업의 범위는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관광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업과 여행업중 90% 이상의 업체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1년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2001년 4월 현재 총 벤처기업체 수는 10,398개이며 이중 관광벤처기업은 45개(0.4%)이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증명을 한 벤처기업의 수는 19개로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000년 6월 현재 새천년국민관광투자조합의 투자 실적을 토대로 관광벤처기업의 현황을 보면 총 8개 업체에 25억9천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1, p.217). 이들 관광벤처기업들은 '개인적인 창안, 기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창업동기의 주를 이루고 있다(김덕기·유지윤, 1999, p.14). 그러나 이 실적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의 위치, 광범위한 관광산업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한 편이다. 물론 관광벤처기업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180여개의 여행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정보화 노력을 볼 때 향후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관광벤처기업 현황

업체명	주업종	투자금액	투자방법	투자금회수
(주)3W투어	인터넷여행업	5억원	투자주식	5년
(주)나무나라	관광기념품 제조유통	3억원	프로젝트투자 매출액의 10%	3년
(주)지스코산업연구소	관광컨설팅	2억원	투자주식	5년
(주)AT호텔메니즈먼트	종합호텔 컨설팅업	1억원	투자주식	5년
(주)스누피플레이스	케릭터상품판매, 레스토랑운영	5억원	프로젝트투자 매출액의 1~1.5%	3년
(주)엠에이디자인	관광기념품 디자인개발(나전칠기)	3억원	약정투자, 투자금액의 년 10% 보장	3년
(주)에틱월드	인터넷 여행업	2억원	투자주식	3년
(주)코리아트레블즈	국민관광상품권 발행사업	4억9천만원	투자주식	5년

출처 : 문화관광부(2001),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p. 219.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밝은 전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지원으로서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지원, 벤처기업 기술력향상 지원, 중소기업상담회사와 같은 것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차원에서의 접근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6월말 현재 4개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표 5> 관광관련 창업보육센터 현황(2000년 6월말 현재)

센터명	사업주체	특화분야
연세대 원주창업보육센터	연세대(강원)	물류, 유통, 관광, 레저
경동창업보육센터	경동대학교	관광, 레포츠
대구미래대 창업보육센터	대구미래대	사이버산업, 관광, 외식산업
벤처창업보육센터	동국대학교	문화산업, 정보통신, 생물산업

출처 : http:\\www.smba.go.kr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은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자들이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 서식 및 절차 등 모든 정보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다. 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무상 양여,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상환 면제 등이 도입되어 벤처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하에 설립된 중소기업 상담회사는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영세기업인 관광벤처사업의 자금부문의 지원을 위해서는 5년 기한으로 새천년관광국민 5호투자조합(속칭 새천년관광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벤처기업 제외업종 미포함)에 5억원 이하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투자 분야로서는 관광기념품 개발·제조·유통사업, 주제공원(테마파크) 개발사업, 관광컨설팅사업 및 사이버 여행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수관광기념품개발사업, 우수유기기구개발사업, 주제공원기획·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매체활용 여행사업, 관광컨설팅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1999년 10월 현재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새천년관광벤처투자조합의 지원실적('99. 10. 현재)

업체명	계획사업	지원액	지원방법	비고
(주)3W투어	사이버여행업	5억	지분투자	투자완료
나무나라와 아이들	관광기념품 제조·유통	3억	약정투자	투자완료
엠에이디자인(주)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3억	약정투자	투자완료
스누피플레이스(주)	식음료 및 캐릭터상품 판매	5억	약정투자	투자완료
지스코산업연구소	관광컨설팅	2억	지분투자	투자완료
AT호텔매니지먼트(주)	호텔컨설팅	1억	지분투자	투자예정

주 : 1. 지분투자 - 주식인수 형태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
2. 약정투자 - 매출액 또는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수익으로 미리 정하고 프로젝트 운용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출처 : 김덕기·유지윤(1999), p.24에서 재인용

이외에도 관광분야의 벤처캐피탈의 지원 현황을 보면, 2001년 현재 국민기술금융의 4개 업체를 포함한 18개 업체가 투자에 참여(최기탁, 2001, p.14)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참여는 관광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덕기와 유지윤은 현재의 관광벤처사업외에도 향후 진출 가능한 업종으로서 여행업에서는 사이버여행업, 관광중개업 등, 숙박업에서는 호텔컨설팅업,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는 소주제공원기획개발업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을 포함한 관광벤처사업은 향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 관광산업의 벤처기업 진출가능 업종(안)

유형	현행업종	관광벤처 가능 업종
여행업	- 일반여행업 - 국내여행업 - 국외여행업	- 사이버여행업 - 여행설계업 - 관광정보제공업 - 관광중개업
숙박업	- 호텔업 - 휴양콘도미니엄업	- 중저가숙박시설업 - 호텔컨설팅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종합)휴양업 - 자동차야영장업 - 관광유람선업 - 관광음식점업(극장식)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 유원시설업	- 소주제공원기획개발업 - 관광기념품제조업 - 놀이기구제조업
국제회의용역업	-	- 국제회의유치업
카지노업	-	- 카지노기구제작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토속주판매업 - 전문관광식당업 - 일반관광식당업	-
기타	-	- 관광이벤트개발업 - 관광상품개발업 - 관광업체 컨설팅 - 관광음식개발운영업

출처 : 김덕기 · 유지윤(1999), p.68.

3. 관광벤처사업의 문제점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현행 관광벤처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까다로운 관광벤처 지정요건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지정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는 전년대비 매출신장률 100%이상인 신기술사업(벤처기업 유형 3)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유형 1)에 한하여 발급된 벤처증명서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1년 4월 현재 문화관광부로부터 벤처증명서를 받은 203개 업체중 실제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30개에 불과한데, 이는 그 지정조건이 까다로운 것에 기인된다(최기탁, 2002, p.15)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비율(100분의 5)을 규정하고 있는 유형 2와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하는 유형 3은 물론 중소기업창업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기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주식인수 총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의 조건은 호텔 등 일부 대기업 관광기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업체인 관광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어렵다 하겠다.

둘째, 제한된 관광벤처 지원

현재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 재정적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 특히 관광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새천년관광벤처투자조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금지원은 5년 기한 5억원 이하의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9년 10월 현재 6개 업체에 19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약 1만개에 달하는 관광업체에 비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관광벤처사업의 협소한 범위와 낮은 기술개발력

관광벤처사업에는 관광기념품 개발사업, 국제회의기획사업, 주제공원 기획·개발사업, 관광컨설팅사업, 우수여행상품개발사업, 첨단매체 및 기술활용 여행사업, 종합휴양업내 놀이기구 개발업 등이 있음에도 현재 관광벤처기업의 대부분은 여행업에 치중되고 있다. 물론 관광벤처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꼽고 있는 것이 사이버 여행업이며, 국내 여행시장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에는 편중된 실정이다. 이는 사이버 여행업이 지닌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 신속성, 저렴한 가격, 안정성, 마일리지 누적 및 이용 편의성의 특성(김홍범 등, 2000, p.204)에 기인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렴한 비

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벤처사업의 핵심은 지속적인 기술개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러한 기술개발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신상품을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오프라인과 중복경쟁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관광전문인력의 부재와 산학연 연대기반 취약

관광벤처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학과 관광산업현장의 직접적인 협동방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관광전문인력이 부재한 것은 물론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 집중적인 일방향적 관계에 편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관광벤처사업가들의 기업가정신 부족

벤처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벤처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극히 미미한 수준의 관광벤처사업의 창업과 기존 사업을 중심으로 한 운영 현황을 볼 때 아직 기업가정신은 요원한 실정이다.

Ⅲ. 관광벤처사업 활성화 방안

관광벤처기업 육성방안을 연구한 김덕기 · 유지윤(1999, p.55)은 우리 나라 관광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민간부문의 창의성 적극 활용, 원활한 관광벤처기업 투자환경 조성의 기본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장승권 등(장승권 · 정명호 · 김영수, 2000) 대부분 인터넷을 토대로 하고 있는 관광벤처사업을 포함한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영환경측면에서 관심을 유도하여 주목을 끌고, 만족을 제공하여 주목을 유지하고, 주목을 습관으로 만들어 고착시키고, 기업가정신 측면에서 미래에 도전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하며, 조직운영측면에서 열린 지식인프라를 만들고, 지식자산을 함께 나누고, 하면서 배우는 9가지 성공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하는 육성방안 및 성공조건은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시킴으로써 관광벤처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관광벤처 지정요건의 완화 및 다양화

최근 벤처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중기청, 문화부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관광벤처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유형 3과 관련하여 문화부에서는 신기술제품 매출액 50% 이상, 신기술제품 수출액 25% 이상, 신기술제품 기준 미달기업 중 벤처평가기관인정기업에 대해서도 관광벤처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2001년 4월 현재 8개 업체가 유형 3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관광벤처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둘째, 정부의 관광벤처기업 지원 강화

정부차원에서 관광벤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벤처사업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광산업관련 산업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유도(서용건, 2002, p.50), 관광벤처기업 육성대책 마련(박충희, 2000, p.267) 등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미국 온라인 리서치사 eMarketer가 2002년 항공권, 숙박, 렌트카, 관광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여행상품이 전자상거래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국관광연구원, 1999)하고 있듯이 21세기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줄 유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증명요건으로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300%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확인요령」을 개정하여 매출액 증가율을 100% 이내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관광벤처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창업컨설팅, 전문교육 실시, 벤처캐피탈 유치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셋째, 관광벤처사업의 컨텐츠 확대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최근에는 관광레저전문 케이블TV(리빙TV), 온라인 통역서비스(이지세이)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으나 아직은 요원한 실정이다. 관광벤처사업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중 상품정보의 빈약(김영문, 2001, p.120) 특히 사이버여행사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한 편이다. 즉,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쉽게 호기심을 접어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주기적 정보제공을 통한 회원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약관 마련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광벤처사업의 주된

역할은 관광객들의 목적지향적인 선택행동을 하는데 유용한 일체의 알림사항(김천중, 1998, p.21)인 관광정보의 제공을 통한 수익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컨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사업의 경쟁력 확보는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수준은 물론 가격정보, 예약정보, 경험정보에 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최재준, 2000, p.58)를 볼 때 정(+)의 관계에 있어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넷째, 관광벤처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관광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체득한 관광벤처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첨단정보기술을 요하는 IT산업과의 연동이 어려운 관광벤처사업의 경우, 기존 컴퓨터, 멀티미디어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관광관련 대학과 기술개발, 정보공유,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관광벤처사업체에 대한 사업 동기 부여

관광벤처사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한 뚜렷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즉, 관광벤처사업을 통한 영리 확보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광벤처사업의 뚜렷한 목표의식 인식, 유능한 IT(information technology) 파트너 확보, 관광산업의 틈새시장(niche market) 개발(서용건, 2002, p.49)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관광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관광벤처사업 네트워크 구축은 정부차원에서의 기반조성이 전제가 된다.

Ⅳ. 결 론

관광벤처사업은 기존의 오프라인사업에 의존하던 관광업계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대다수 관광업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벤처사업 도입 노력 역시 아직은 투자가 미흡하여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관광벤처사업은 소규모·저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로서 신지식

및 신기술을 개발할 경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하여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1999년 관광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자금 투자, 관광벤처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 지원,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어 관광벤처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관광벤처사업은 까다로운 관광벤처 지정 조건, 제한된 지원, 협소한 범위와 낮은 기술력, 관광벤처 전문인력의 부재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정요건의 완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컨텐츠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관광벤처 사업동기 부여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벤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가장 긴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광산업을 21세기 핵심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기 확충 및 민간 투자재원 확보, 둘째 관광관련 업계의 경영개선과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정책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분야 벤처기업제도 지원제도의 강화, 셋째 호텔 및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관련 인력개발에서 각종 관광휴양시설부문, 레저산업 및 컨벤션산업 등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업계에서도 다양한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업계의 체질 개선 즉, 관광정보네트워크의 형성과 사이버마케팅체제 구축이 필요(산업연구원, 1996, pp.96~7)하다.

참 고 문 헌

1. 고성수(1995),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시장의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 권오혁(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김대관(2000), 「사이버 관광사업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4. 김덕기 · 유지윤(1999), 「관광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5. 김동영(2000), 여행사에서의 데이터베이스마케팅 적용에 관한 연구 : 고객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김영문(2001), "국내 관광관련산업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도입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광연구 16(1), pp. 105~124.
7. 김천중(1998), 관광정보론 : 관광정보와 인터넷, 대왕사.
8. 김홍범, 정하나, 이경하(2000), "사이버여행사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5(2), pp. 201~218.
9. 남상우 외(1991), 「벤처캐피탈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0. 박충희(2000), "정보화정책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관광연구 15(1), pp. 252~270.
11. 산업연구원(1996), "일본의 최근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과 시사점," 「KIET 실물경제 REVIEW」, 제16호.
12. 장승권 · 정명호 · 김영수(2000), 『인터넷 지식벤처의 성공 조건』, 삼성경제연구소.
13. 서용건(2002), "중소관광기업의 e-business전략과 지원방안," 한국관광정책 4(2), 한국관광연구원, pp. 47~51.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벤처산업 활성화 방안」.
15. 이덕훈 외(1996), 「창업지원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6. 이장우(1997), 「기업가 정신과 벤처기업론」, 벤처기업협회.
17. 이진주 외(1991), 「한국 벤처산업의 역할분석과 그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8. 최기탁(2001), "관광분야 벤처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19. 최재준(2000), "인터넷 관광정보유형에 대한 지각이 이용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8),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Abstract

A Study on the Situation and Activation Method of the Tourism Venture Industry

Kim, Mee-kyung

관광벤처사업은 기존의 오프라인사업에 의존하던 관광업계에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관광벤처사업은 소규모·저자본으로 접근 가능한 분야로서 관광벤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1999년 관광전문투자조합 결성 및 자금 투자, 관광벤처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창업보육센터, 창업정보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정보 지원, 벤처기업 기술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상담회사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강구하고 있어 관광벤처사업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관광벤처사업은 까다로운 관광벤처 지정 조건, 제한된 지원, 협소한 범위와 낮은 기술력, 관광벤처 전문인력의 부재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지정요건의 완화,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컨텐츠 다양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관광벤처 사업동기 부여 등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